

## 한 권에 담은 2차 세계대전의 거의 모든 것\*

이 재 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 1.

지난 100여 년간 인류는 이전의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와 성격을 지닌 일련의 전쟁들을 경험해왔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총력전(total war)’이라는 전혀 새로운 성격의 전쟁을 등장시켰다. 승리를 위해 군사력과 함께 국가의 모든 힘이 투입되었으며, 대량동원과 대량파괴가 수반되었고, 군인 사상자수보다 훨씬 웃도는 일반시민 사상자수가 속출함에 따라 전쟁이 낳긴 상흔도 과거의 그 어떤 전쟁보다 컸던 전쟁이 1차 대전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보다 심화된 2차 세계대전 역시 전 국민을 소집 대상으로 삼고, 국민경제가 가동할 수 있는 전 물자를 ‘총체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첨단 현대 무기를 통한 ‘조직화된 대량살상’과 그에 따른 적의 완전한 무력화를 꾀하였다.

전쟁의 규모와 강도, 범위, 그리고 물적·인적 손실의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은 이전에 벌어진,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그 어떤 전쟁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서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까지 만 6년 동안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살육전이었다.

\* 키건 / 류한수 역,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7.

지구의 거의 모든 대륙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고, 전 세계 인구의 80%를 끌어들이었으며, 5,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한 전비(戰費)는 당시 미화로 1조 달러로 추산되며,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전략공격(strategic attack)’ - 적 후방의 산업단지, 주거지, 사회간접자본, 고위 사령부 등의 목표에 대한 직접 공격 - 개념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참전 각국의 후방도 모두 공격의 표적이 되어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잿더미만 남은 유럽의 모습과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화생방 병기와 핵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최종병기(ultimate weapon)’의 위력은 인류가 전쟁이라는 해결 수단에 대해 어쩌면 처음으로 집단적인 깊은 후회를 하게끔 만들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전쟁은 인간의 기술과 문화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적 지형도마저 바꿔버린 대사건이었다.

개전(開戰) 50주년을 기념하여 1990년에 간행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존 키건(John Keegan)의 방대한 저서 『2차세계대전사』가 번역, 출간되었다. 수많은 문헌목록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논란이 이는 테일러(A. J. P. Taylor)의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지식의 풍경) 외에는 이 주제에 대해 소개된 통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키건 저서의 번역은 반가운 일이다. 『2차세계대전사』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의 전모와 이면, 그리고 세부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이다.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Royal Military Academy, Sandhurst)의 교수로 26년 동안 군사사를 강의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교수, 바사 대학교(Vassar College)의 석좌교수, 그리고 1986년부터 『데일리 텔리그래프(Daily Telegraph)』 국방부문 대기자로 활약한 존 키건은 20여권이 넘는 책을 쓰거나 엮어낸,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역사학계의 거목이자 군사사의 대가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전쟁의 얼굴』(지호), 『세계전쟁사』(까치), 『정보와 전쟁』(까치) 등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장군들의 용병술 분석에 치중하는 기존의 전쟁사 서술을 뛰어넘어 전쟁의 역사적 연원, 기술변화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 지휘관이 고비마다 부딪히는 선택과 딜레마, 군인 개개인의 세세한 경험과 감정을 능란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2.

『2차세계대전사』에서 키건은 한 권의 책으로는 요약하기 어려운 방대한 사건들을 명료한 분석틀로 짜임새 있게 서술한다. 효과적인 서술과 이해를 위해 전쟁을 세 개의 전역(戰域)으로 — 유럽 서부전선, 유럽 동부전선, 태평양 지역 — 나누고 이를 다시 전쟁 발발과 확전의 전반기(1941~43년)와 미드웨이 해전 등을 기점으로 전세가 뒤집히고 종전으로 이어지는 후반기(1943~45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책 머리」에서 언급했듯이, 저자는 2차 세계대전을 사건들의 연속으로 죽 이어 서술하기보다는 네 가지 주제로 — 즉, 전략 분석, 사건 설명, 본보기 전투, ‘전쟁의 논제’로 — 나누고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의 전모를 전 지구적 시야에서 고찰하고 있다. 각 절의 도입부는 해당 시기에 가장 큰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 히틀러, 도조, 처칠, 스탈린, 루스벨트 순으로 — 이루어지는 전략 분석과 작전 수행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에 대한 설명이며, 각 절에는 적절한 사건 설명부 외에도 연관된 ‘전쟁의 논제’와 본보기 전투가 하나씩 들어 있다. 전쟁의 성격과 양상을 변화시킨 브리튼 전투(항공전), 크레타 전투(공수전), 미드웨이 해전(항공모함전), 팔레즈 전투(전차전), 베를린 포위전(시가전), 오키나와 전투(상륙전) 등 여섯 개의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현대전의 독특한 성격과 동기에 대해 설명하며, 전시 보급, 군수 생산, 점령과 억압, 전략폭격, 무장저항과 첩보활동, 특수병기 같은 전쟁학의 쟁점을 각각의 장을 할애해 다룬다.

먼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 2장에서 저자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보다는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발발 원인보다는 전

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회, 정치, 국제학적 배경에 주목하여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다. 특별히 19세기의 산업혁명과 부르주아 혁명이 ‘국민개병’과 ‘유럽의 군사화’라는 20세기의 이 파멸적 전쟁의 씨앗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1부, 「유럽 서부전선의 전쟁, 1940~1943」에서는 ‘전격전’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은 속도의 전쟁이었다.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가 바르샤바를 포위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보름 남짓이었다. 거의 숨 돌릴 틈 없이 질주한 이 전쟁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말이 ‘전격전(Blitzkrieg)’이다. 괴벨스(P. J. Goebbels)가 이끄는 독일의 선전부에서 폴란드 전역(戰役, campaign) 이후 선동용으로 붙인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집약한 것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전차, 장갑차, 항공기 등을 이용한 기동전 및 이를 통한 포위섬멸전’으로 요약되는 전격전은 1940년 독일의 프랑스 침공에서 그 파괴력을 생생하게 드러냈으며,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독일의 롬멜(Erwin Rommel) 장군이 북아프리카의 사막전에서, 그리고 1944년 미국의 패튼(G. S. Patton) 장군이 유럽전에서 각각 채택하여 그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유럽 서부전선에서 1943년 이후의 전황을 다룬 4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아이콘으로 각인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인 오벌로드(Overlord) 작전,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유럽 서부전선에서의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갑부대의 격돌이 이루어졌던 팔레즈(Falaise) 전투, 10만 명의 미군 사상자를 배출하며, 미군이 치른 단일 전투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벌지(Bulge)’ 전투라고 불렸던 아르덴(Ardennes) 전투 등에서 어떻게 연합군이 승리하고 전쟁을 종결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전격전은 유럽 동부전선에서도 그 위용을 과시했다. 2부, 「유럽 동부전선의 전쟁, 1940~1943」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체에 걸쳐 가장 크고 잔혹한 싸움인 동부전선의 사투에 대해 설명한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Adolf Hitler)는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주도한 12세기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의 이름을 딴 ‘바바로사(Barbarossa)’라는 작전 암호명으로 150개 사단 360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숙원인 소련 침공에 나선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다. 비록 1939년의 독소불가침조약을 통해 소련에 대한 침략 의도를 눈가림하기는 했지만, 애당초 그의 최종 목표는 동방 진출, 다시 말해 러시아 전토를 점령하고 그곳을 ‘모든 인간을 지배할 권리를 지닌’ 게르만 민족의 생활터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독일군이 유럽 서부 전선에서 행한 모든 작전 행동은 러시아 진격의 발판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전쟁의 일방적 양상을 바꾼 것은 ‘1812년 요소’였다고 키건은 지적한다. 1812년 러시아 정복 전쟁에서 나폴레옹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겼던 ‘동장군’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진창길, 불어나는 하천의 물살, 눈보라와 눈더미로 인해 전쟁의 추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다섯 달이 넘도록 계속된 공방전은 양쪽 지도자의 자존심이 걸린 결정전이 되었다. 1943년 1월 30일 마침내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 본대가 항복했고,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의 패망을 향해 달리는 형국으로 돌아섰다. 2년 후에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참혹한 난타전 속에서 소련군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인 유럽대륙에서 벌어진 전쟁·전투와 달리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촉발된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대결로 압축된다. 3부와 6부 『태평양 전쟁』 편에서 저자는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은 해군력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음을 묘사한다. 절대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참패함으로 태평양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설명한다. 결국 1945년 8월 6일, 끝까지 안간힘을 쓰던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두 손을 들게 되고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고 결론짓는다.

키건의 전쟁사는 무척 흥미진진하다. 5부, 「유럽 동부전선의 전쟁, 1943~1945」 중에서는 26장 「무장저항과 첩보활동」의 장이 주목을 끈다. 이 장에서는 바르샤바 봉기나 동유럽 국가 내부의 파르티잔 활동, 연합국과 추축국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 ‘정보·첩보전’의 경과를 소개한다. 가령 독일 ‘U-보트’ 신화의 열쇠는 영국 해군의 ‘3번 암호’(주로 대서양 횡단 호송선단의 이동 암호로 쓰였음)를 거의 실시간으로 해독한 독일 해군 감청반이 쥐고 있었고,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는 일본 해군기구의 암호와 외교기구 암호를 해독해낸 미국 첩보조직 ‘매직’

에 의해 결정됐다고 저자는 밝힌다. 반면에 파르티잔과 레지스탕스 대원들의 활동은, 키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그들의 영웅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는 독일과 일본의 암호를 해독해낸 울트라(Ultra)와 매직(Magic) 등의 첩보조직에 비해 훨씬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에필로그: 2차 세계대전의 유산」에서 저자는 전후처리 과정과 각국의 상황에 대해 묘사한 후, 1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쟁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승전국들만 깨달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경우는 승전국이나 패전국 모두에 이 믿음을 갖게 했다고 주장한다. 1939~1945년에 절정에 이르렀던 ‘국민개병’ 원칙은 이 원칙에 따라 살아온 나라들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고통은 전쟁을 다시 벌인다는 생각을 정치철학에서 쫓아내버릴 만큼 엄청났다고 한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전후에도 식민지에서 전쟁을 지속했고, 가장 보상이 컸던 미국은 베트남이나 한국에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했고 지금도 이라크에서 전쟁 중이다. 이를 미리 알았던 듯 저자는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을 치른 여러 나라 국민에게 모두 평화가 되 돌아오지는 않았고 평화가 왔다 하더라도 그 앞날을 종잡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 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차세계대전사』는 기존의 전쟁사 서술방식을 탈피하고 현장감 넘치는 탁월한 전투묘사로 영상의 이미지에 가려져있던 전쟁의 새로운 진실을 엿보게 한다. 키건은 방대한 분량의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자나 야전 장군의 전쟁 기획과 전략 일변도의 전쟁사, 개별 전투의 극적인 전개에 치중한 협소한 전투사 등에 매몰되지 않고 전장과 교호(交互)하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심리의 양상들을 조망한다. 새로운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연합국과 추축국의 지도자들이 벌이는 치열한 두뇌싸움이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으며, 히틀러, 도조, 처칠, 스탈린, 루스벨트 등 각국의 지도자들이 당면했던 전략적 딜레마와 그들

이 내린 결정이 개별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했다. 전투의 양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와 전장을 포착한 흑백사진들이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키건의 저서는 가히 한 권으로 2차 세계대전의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노작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각 전역의 서술과 분석에 주어지는 분량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유럽 서부전선에 대한 비중이 유럽 동부전선과 태평양 전쟁의 그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소련이나 일본보다는 영국과 미국에 치우쳐 기술하고 있는 점은 저자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편견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세계대전’으로서의 ‘2차 대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귀족적, 보수주의적 취향의 이 영국인 저자는 지나치게 자기민족 중심주의의 서술을 행한다. “전자전 분야에서 영국의 창의성은 세계에서 맞수를 찾을 수 없었다.”(p. 321)고 평가하기도 하며, 영국과 미국 군대가 전쟁에 공헌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키건의 저서는 2차 세계대전을 ‘좋은 전쟁(Good War)’으로 묘사한다. 독일의 영토 확장과 일본의 ‘신질서’라는 이름 하에 행해진 ‘가학행위와 잔학행위’는 비난하면서도 영국의 대외 제국주의적 팽창은 정당화한다. “일본의 ‘신질서’의 기조는 협조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자기기만적이고 위선적이었고 그 실상은 혹독하고 강탈을 일삼았다. 일본의 가학행위와 잔학행위는 마구잡이였고 산발적이었다. 히틀러의 ‘신질서’는(일본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대독일제국만의 이익에 봉사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신질서가 작동하도 록 만드는 데 이용된 강압체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그 밑바탕이 된 차별과 보복과 공포는 중앙에서 이행되는 규칙과 절차의 지배를 받았다.”(p. 422).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입장과 표현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고집 센 샤를 드골이 지휘하는 1개 사단은 아직 편성 중에 있었다.”(p. 94)고 말하며, “프랑스 전투에서의 연합군의 패배는 전략과 군 구조, 그리고 물질 차원의 임전태세뿐만 아니라 심리 차원의 임전태세에 들어 있던 결함의 소산이었다.”(p. 135)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수상 처

철이 “역사상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토록 적은 사람들로부터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없었다”며 영국 전투 조종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던 ‘브리튼 전투’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싸움이었음을 강조한다(p. 135).

전승국이면서도 최대 피해국인 소련과 스탈린에 대한 편파적인 반감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바르바로사’ 작전 시기에) 스탈린도 무자비하고 냉정하게 작전을 펼쳤지만, 그는 제 궤에 제가 넘어가는 조잡한 유아론(唯我論) 탓에 (히틀러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거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적에게도 자기만큼 모질고 탐욕스럽게 계산하는 패턴이 있다고 여겼다.”(pp. 268-269)고 주장하며, “독일군이 러시아 서부를 공격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 있다는 술한 증거에 대해 뻔히 알면서도 스탈린은 달갑지 않은 사실 해석이 모두 다 서구의 악의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자기의 믿음과 바람을 버리지 않았다. ... 존 에릭슨 교수가 예증한 대로, 거꾸로 된 스탈린의 세계에서는 ‘믿을 만한’ 첩보는 자동으로 ‘믿을 만하지 못한’ 첩보로 간주되었다.”(pp. 272-273)고 평가하며 스탈린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 또한 키건은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한 소련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소련이 서구 동맹국가에게 진 빛, 특별히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강조한다. “소련은 퍼붓듯 주어지는(미국) 원조의 덕을 보았다. 기증물 가운데 전자 같은 일부 물자는 소련에 필요 없었고, 항공기 같은 일부 물자는 필요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p. 323)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이 사용한 전쟁물자의 4~6% 정도만을 미국은 지원했을 뿐이었다. 역자도 지적했듯이, 유럽 동부전선에서 자행된 야만행위에 관한 서술에서 키건은 독일이 소련에서 자행한 잔학행위보다 전쟁 말기 독일 민간인이 ‘붉은 군대’에 당하는 참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한다.

이상 열거한 몇몇 허점과 맹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전사가 지녀야 할 정밀함과 스펙터클, 전쟁 일반의 문명사적 의미와 2차 세계대전의 현대사적 의미에 있어 여전히 독보적이다. 생소한 인물이나 배경적 사건들에 대해 번역자가 달아둔 600여 개의 주석은 이 거장의 전쟁사를 충실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한반도의 운명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금의 이라크 전쟁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2차 세계대전의 현재적 의미, 그리고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는 저자의

희망적 분석도 무색하게 온존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의 만성적 위협 속에서 이 책의 가치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바래지 않을 것이다.

